

“포교 확대로 밀교 대중화”

진각종 교학체계 심화 등 중무기조 발표

기획실 신설·중앙행정업무 교구청 이양

밀교 프로그램 개발·유적지 복원등 추진

진각종(총리원장 효암)이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으로 밀교 중흥과 종단 발전을 꾀한다.

진각종 총리원은 “올해는 반세기의 종단사를 발원으로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회당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밀교를 중흥하고 민족과 인류의 복원이 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무기조를 펼치겠다”고 1월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중무기조를 ‘포교전략 실천의 해’로 정하고, 진각시스템 및 네트워크 재구축, 교학·교법체계 심화, 전문적 포교영역 확대 등 3대 중무기표를 바탕으로 36개 주요사업

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진각종 총리원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기획실 설치 등 중무기조 조직 정비 △행정업무 전산화 △중앙행정업무의 교구청 이관을 통한 교구청 활성화 △도제 양성 체계 확립 △포교 및 수행 시스템 구축 △중무원 특성화 및 전문화 △신학교도 지도자 육성 △신행프로그램 개발 등 11개 사업을 펼쳐 나간다.

또 종조 법어집 발간, 종조 회당조사 사상의 연구를 통한 종단 정체성 확립, 밀교 대중화 프로그램 개발, 밀교유적지 복원, 밀교 학술활동 지원 등 교학 및 교법체계도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 포교영역 확대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포교 지원 확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포교 활성화, 위대대 특성화대학 육성, NGO 활동 강화, 복지 기획 사업 전개 등의 불사도 펼쳐 나간다. 특히 어린이·청소년·군포교 기반 조성과 탈북자 등 소외계층 지원활동 강화, NGO 활동 강화, 위대대 특성화대학 육성 등 종단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이 밖에도 종립학교와 종단간 네트워크 구성, 밀교신문화 확대, 문화출판사업 활성화, 심인권위원회 설립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진각종 총리원 회장 기획국장은 “종단 내적으로는 교학체계 확립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닦고, 외적으로는 다가서는 포교로 밀교 흥포와 종단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교의식에 담긴 원용·청규 조명

불교의식 대비작법편 출간 심상현 교수



“불교의식은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심오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불교의식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발전된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어요.”

불교의식에 대한 연구와 집필을 하고 있는 동방불교대학 심상현 교수(52)가 <불교의식각론 VII·VIII> 대비작법편을 출간했다. 2000년 5월 <불교의식각론 I> 공양시의식편을 시작으로 일용의법, 상주권공 등 한국불교의식을 총정리하고 있는 심 교수의 여덟 번째 책이다.

“대비작법은 선과 교, 염불과 진언의 골수가 고루 들어있는 의문(義文), 이를 장엄하게 실천으로 옮기는 위(威儀)와 작법을 농축시킨 의식입니다.”

심 교수는 의식을 ‘종교의 꽃’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한국의 불교의식은 교리 사상 문화 예술 역사 등이 내포되어 원용불교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살필 수 있는 요체라는 것이다. 또 의식 안에 청규를 응해서 일원화함으로써, 의식을 알면 청규를 익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은 한국불교의식만의 특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의식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미를 모른 채 행해지고, 해설서조차도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심 교수는 지적한다. 불교의식을 제대로 정리해야겠다는 결심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현재 심 교수는 대비작법에 이어 영산재, 생전예수재, 수록재 의식에 대한 집필을 시작했다.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더러도 한국불교의식을 바르게 전하겠다는 각오다.

“의식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언제나 미완성이예요.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됩니다. 한국불교의식의 진면목을 찾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작은 바람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봉영 기자

종조전 3월 착공, 연내 마무리

총지종, 총본산 건립 본격화...부지 마련 나서

총지종(총리원장 법공)은 종조 탄신 97주년을 맞아 올해 종조전 조성을 결의하는 등 총본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지종은 1월 16일 총지사에서 종조전 건립위원회와 전당 건설위원회를 열고, 종조전 조성은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결의했다. 종조전은 지난해 총본산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이 수립된 이후 시작되는 첫 불사로, 서울 총지사내 2층에 조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조전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검토, 13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확정하는 한편 공개 입찰을 통해 입자를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총지종은 종조전 조성을 시작으로 총본산 건립을 위한 부지 마련, 기금 조성 등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총지종 총령 특정대정사는 “종조전 건립은 단순히 짓는 것만으로도 치지 않고 종조님의 정신과 수행실천을

배우고 따르는 계기가 되도록 종도들의 원력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선각종 국제불교대 안거 입제

선각종 국제불교대학 학인 70여명은 1월 13일 보성 전봉선원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해 동안계 결제에 들어갔다. 종단의 수행중풍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결제는 이달말 해제한다.

한편 중정 영답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정암스님, 선원장 도문스님, 국제불교대학 학장 다보스님 등이 참석한 입제식에서 영답스님은 “불철주야 용맹정진하여 종단의 수행중풍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게시판

구인 ▲진각종은 교화지 중무원을 모집한다. 교교 이상 학력의 남자 만 20~30세, 여자 만 18~25세. 3월 31일까지. (02)913-0751-4

▲조계종 군분교위원회는 직원을 모집한다.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는다. inuk@buddhism.or.kr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언어치료사, 주간보호센터 담당자 및 운전기사 각 1명을 모집한다. 마감은 2월 14일. 문의 총무팀장 박근태. (054)633-6415

▲서울 자양동 효지어린이집은

교사 1명을 모집하고 있다. 자격은 보육교사 1급 및 유치원 2급 정교사. (02)2201-0558

▲김해 보현행원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를 구하고 있다. 마감은 20일. (055)3229-1733

모집 ▲수원 서호노인복지관은 수영장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영장 개장 시간은 오전 7~오후 9시. (031)291-0911

▲서울 마포 광명외과와 인천 경

로의집은 무의탁노인을 돌볼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 광명의집 (02)365-3677 경로의집 (02)761-3677

▲연꽃마을 간병인회에서는 간병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의 접수와 간병 봉사를 할 자원활동가를 찾고 있다. (02)363-7884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불교 사회복지 지도자과정(3월 11일), 자원봉사 기본교육과정(2월 18일), 발반사요법 자원봉사자 교육과정(2월 26일)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02)734-0612

알림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4일 오전 10시 복지관 강당에서 대보름맞이 행사를 연다. 팀 대항 민속놀이, 퀴즈 등 레크리에이션 등 행사를 한다. (02)385-1351

▲터사당은 22일 오전 8시 서울 안국역에서 석굴암과 불국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725-1284

인사 ▲천태종 총무원원은 1월 12일자로 각 말사 주지 인사를 단행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호=인제 강화사

진화 한 문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지동에게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조계종

신규 국제포교사 대만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신규 국제포교사 대만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대만 불광산사, 불광정사, 타이페이도량, 자제공덕회, 수선사, 흥법원 등 불교성지 순례와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포교사 합격자 품수식

조계종 포교원은 22~23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8회 포교사고시 최종합격자와 7회 합격유보자를 대상으로 연수 및 품수식을 갖는다. 이번 연수는 실무 강의 등 포교사로서 지녀야 할 품성과 의무, 팀 활동 안내, 향후 활동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포교사고시 합격자들은 인적사항 보고서와 팀활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02)720-7060

태고종

대전종무원사 건립 추진

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종무원장 월해)은 1월 15일 보문불교포교원에서 교구 주지회의를 열고 종무원사 이전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선수금 1억원을 책정하는 한편 연내 착공 등 구체적인 설립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속 사찰에 대한 기부금 권선, 교구 방생법회·천도재 봉행 등 종무원사 설립기금 총량방안도 세워나가기로 했다.

새로 건립될 대전교구 종무원사는 대지 76평에 건평 100평 2층 조립식 패널조 건물로, 1층은 불교용품점과 요사, 2층은 법당과 사무실로 각각 사용된다.

천태종

교원불자 수련법회 열려

천태종 교원불자 동계수련법회가 1월 24~26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렸다. 각 사찰의 어린이회 지도교사 모임인 연리회 등 교원불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불교를 통한 행동장애 학생의 이해와 지도’를 주제로 예불, 강의, 주제발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윤덕스님은 “청소년들이 바른 생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천태 교원불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각종

역삼노인복지센터 재수탁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2005년까지 역삼노인복지센터 재위탁 운영자로 최근 선정됐다. 관할관청인 서울 강남구청은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 제출한 복지시설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역삼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평가받은 바 있다.

옥천범음대학 2003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년	강의내용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50명
2학년	각배과	50명
3학년	영산과	50명
작법반	착복·바라	50명
이론	불교의식각론	-

2003년 2월 10일 - 3월 5일까지
120 - 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 392-3234
총무소 02) 392-3007-8
팩스 02) 393-9450

옥천범음대학 교무처
2003년 3월 7일
2003년 3월 10일 오후 2시(봉원사 설법전)

승려·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출처서류 (1)입학원서
(2)주민등록등본 및 성적증명서 1부
(3)증명사진 3매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옥천범음대학 학장 김 구해